

# 오피니언

## 다산포럼

정지창



공지영씨의 소설 '도가니'가 일으킨 파장은 문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정치적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문제의 광주 인화학교가 폐쇄되고 '도가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장애인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관심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었다.

아마 작가 자신도 한 편의 소설이 이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져 큰 오백만 명의 관객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 직접 전달된 것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알다시피 이 소설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설의 내용이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편집되고 가공된 허구이다. 그것은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영화제작진은 그래서 "이 영화는 실화 및 이를 바탕으로 씌어진 원작 소설 '도가니'를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무진'이라는 지명 및 각종 인물과 교회, 상호 등 각종 명칭은 모두 실제 사건과 다른 가상의 명칭을 사용하

였으며, 일부 등장인물 및 사건 전개에는 영화적 허구가 가미되어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막으려고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영화가 실제 사건을 모델로 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

민의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러나 소설과 영화가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표현돼 국민감정이 격앙됐다"면서 공지영 작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당의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소설의 허구적 본질을 간파한 듯하다.

"영화에 경찰의 모습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표현됐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경찰을 질책한 같은 인권 위 소속 국회의원도 장애인의 인권이나 작가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경찰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나도 영화가 사실과

다르다고 불평을 한 적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을 다룬 '그때 그 사람들'(2005)은 임상수 감독의 블랙 코미디 영화인데, 나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히 김부장(백윤식 분)과 민대령(김승수 분), 주교장(한석규 분)의 캐릭터가 실제 인물인 김재규 중정부장과 박흥주 대령, 박선호 대령의 뽀뽀미와 전혀 다르게 설정돼 있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취재기자로서 내가 실제 재판 과정에서 목격한 이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당당하고 의연한 군인의 표상이라 할 만했는데, 영화 속에서는 우스꽝스런 인물들로 왜곡돼 있는 것이 속이 상했다. 그렇지만 나는 주

## 사실과 허구

변 사람들에게 이런 불만을 토로했을 뿐, 이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거나 상영금지 가져본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아무리 사실에 기초한 영화나 소설이라도 결국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삼국지'도 진수(陳壽)가 지은 정사 '삼국지'를 바탕으로 나관중(羅貫中)이 대중적 소설로 각색한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가 아닌가. 따지고 보면 정사에 기초하되 수백년에 걸친 대중의 첨삭에 의해 민간인들이 좋아하는 통속본 '삼국지'가 완성된 것

이다. 주역상 선생의 해설에 따르면 정사에는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간 대목을 '凡三往乃見'(무릇 세 번 가서야 마침내 보았다)고 다섯 글자로 기록하였으나 오욕천 자에 달하는 정채(精彩)는 문자로 묘사된 소설의 삼고초려(三顧草廬) 대목은 얼마나 멋지고 생동감이 넘치는가.

왜 사실과 다른 허구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지 주역상 선생의 말을 들어보자. "역사상의 제갈량, 유비, 관우, 장비 등 여러 사물에 대한 '삼국연의'의 지극한 찬양은 동시에 그것이 바로 당시 현실 정치에 대한 준엄한 비판인 것이다. '삼국연의'가 광범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까닭은 바로 그것이 단지 칠분(七分)의 실사(實事)만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 '도가니'가 국민감정을 격앙시킨 것은 많은 관객들이 거기서 묘사된 허구적 진실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번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인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이 많은 관객의 공감을 얻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김명호 교수의 이른바 '석공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안성기가 내뿜는 한 마디는 비수처럼 우리의 양심을 찌른다. "이게 재판입니까? 재판이지." (영화대 독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퇴출 명신·성화대 재학생 불이익 안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순천의 4년제 대학인 명신대와 강진의 전문대학인 성화대에 대해 폐교 조치를 내렸다. 중대한 부정·비리가 교과부의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 요구와 함께 2차례 학교 폐쇄 계고처분을 받았으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대학의 폐쇄 명령은 다음달 중순 내려지고 정시 모집은 중지된다. 교과부는 특히 재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명신대 7개 학과 재학생 537명에 대해 전남·광주지역의 동신대 등 7개 대학에 편입토록 하고 성화대 31개 과 2762명도 인근지역 14개 전문대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명신대는 교과부 감사 결과, 17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으나 5건만 이행했고, 성화대도 20건 가운데 1건만 시정한 상태다. 교비 횡령액도 각각 40억 원과 65억 원에 달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비리 대학에 대해 학교 폐쇄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

라고 밝혔다. 명신대와 성화대의 퇴출이 '첫 본보기'가 된 셈이다.

부실대학 숙여내기에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국가적 중요 과제다. 국내 대학은 지난 20년 사이 무려 1백 개 이상이 늘어나는 등 포화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실·비리 대학이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폐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실대학 구조조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렇더라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성화대의 경우 아직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점 미달 상태에 있어 타 대학으로 편입하더라도 학점이나 학위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과부는 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교직원 구제책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대학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민주, 2040세대 환골탈태 요구 깊이 새겨야

민주당에 대한 환골탈태 요구가 거세다. 지난 3일 광주 YMCA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광주·전남 청년 100인 원탁회의'에서는 호남 안주·무사안일주의 탈피,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 등 당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민주당이 그동안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대한 비판이나 다름 없다.

이날 20~40대 참가자들의 발언 핵심은 한마디로 민주당의 체질 개선으로 요약된다. 참석자 중 가장 많은 29%가 민주당 위기의 원인이 '호남만 믿는 무사안일과 기득권'을 꼽았고, 26%가 '참신한 젊은 인재 영입 장벽과 리더십 부재'를 지적했다.

이밖에 젊은 세대 포용 정책 미흡, 소통 시스템 부재, 공천 관련 불신 등의 의견도 쏟아졌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지역색만 믿고 무사안일에 빠져 기득권에 안주하는 데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사실 민주당에 대한 변화 요구는 '10·26 서울시장 선거'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대기업을 무대정책, 부자정책, 측근 인사' 등 정부의 많은 실정에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 그래서 MB정부가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민주당 지지도는 20%선에 정체를 멈춘 상태. 급기야 서울시장 후보조차 못내 60년 전통의 제1야당으로서 체면까지 구겼다.

2040세대 민심에서도 드러났듯이 민주당은 본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과거 김대중 총재 시절에는 총선·대선 때마다 재야·시민단체로부터 새 인물을 추천, 체질 개선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마저도 안 되고 있다.

민주당은 안철수 교수 같은 인물이 당 밖에서 거둬 따오고, 이들이 선뜻 합류하지 않는 이유를 이번 회의를 통해 충분히 읽어야 할 것이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해 진정한 수권정당, 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 NGO 칼럼



김광훈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사고율을 전국최저수준으로 감축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교통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광주시 민선 5기 100대 역점과제 중의 하나다. 교통사고는 몇 년째 광주전남이 불명예스럽게 1, 2위를 번갈아 차지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41명(65세 이상·노인/2009년 기준)으로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교통 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

### 차량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다

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보도를 통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적은 최소폭은 2.0m. 규정에 의한 복잡한 계산식을 고민하지 않더라도 주택이 이면도로, 특히 학교주변의 보도 등은 이러한 최소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고 학부모들이 차량으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서 오히려 사고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일반인이 다니기에도 불편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 심각하다. 휠체어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보도 폭도 중요하지만 경계석 높이가 2cm이하여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의문이다. 짐차불러 설치율은 51%로 전체도로 중에서 절반 정도인데 그나마 진행방향과는 연결된

부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따른다. 정리하자면 교통 약자(특히 장애인)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통계적 발표가 집중되는 연말 즈음하여 다양한 교육과 홍보가 반복되지만 효과가 반쪽이고 한때 나타났다 가 금세 예전 행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교통 약자를 비롯한 운전자 대상으로 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는 먼저 차량운전자들의 경우 초보운전,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그 당시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또 보행자 또한 주의가 이면도로나 왕복 2차선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은 금물이다.

## 기고



임영묵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 제일의 아마존 열대 우림이 사막으로 퇴화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있는 20여개의 섬이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2000여개의 섬과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몰디브가 바다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가 발표되는 등 곳곳에서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극심한 가뭄과 이상저온, 이상고온, 집중호우, 폭우 등 기후 관련 역사가 매년 새롭게 기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류가 입고 있는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방지할 경우 2100년까지 경제적 손실이 세계 GDP의 5~

20%에 달해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 위기 극복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 2005년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의무화할 수 있는 교도 의정서를 발효하였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녹색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IEA(국제에너지기구), APP(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십)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다자간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온실가스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건국 60주년 대통령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선포한 이후, 녹색성장을 위한 수많은 변화를 추진해 온 결과, 우리의 경제와 생활에서 녹색성장의 시대를 열었다.

'녹색성장'이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전남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녹색성장정책실'을 신설, 국(局)단위 체계의 추진조직으로 확대·개편했으며 녹색성장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기구로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전남실현'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위하여 7대 분야 171개 단위사업별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지역사와 저탄소 녹색생활실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도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지라도 지역 주민의 의식변화와 참여가 없다면 모두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전남도는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출·퇴근길에서 도민들이 녹색생활에 동참할 수

록이 다 들어가 준다면 금상첨화 아닐까. 그런 정보관리 통합망이 완성된다면 우리나라의 양돈 산업은 안정적인 바탕 위에 적당히 그 마릿수를 조절하면서 과잉 입식도 막고, 적절한 가격에 출하를 하면서 양돈 축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모든 양돈농가가 돼지 귀에 바코드가 달린 귀표를 붙이고 그걸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전산망을 구축하고 양돈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면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양돈은 더욱 발전할 걸로 본다.

▲김윤남·광주시 남구 방림동

###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최근 '녹색생활 실천주간'으로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도민들이 녹색성장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높아졌으나, 아직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된 체계적 변화가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다.

가정과 직장에서 개인 컵이나 손수건,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를 뽑고, 가까운 거리는 걸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며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알맞은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생활속 녹색실천은 누구나 쉽게 실천가능한 실천과제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작은 노력, 미래 세대를 위한 아이들을 생각하는 작은 마음에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저탄소 녹색사회를 위한 녹색실천은 오래도록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 것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동참과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녹색실천 하나하나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지구를 살리는 일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작은 실천들은 생활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도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기대해 본다. <전남도 녹색성장정책실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돼지값 널뛰기 막도록 통합관리전산망 구축해야

이번 배추값 파동과 폭동, 폭락의 널뛰기 과정을 보면서 우리 농민들의 고충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간다.

고향에서 부모님이 양돈업을 하고 계신데 배추 파동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는다. 돼지도 가격이 폭락하거나 또는 턱없이 오르기도 한다. 이런 널뛰기를 막기 위해서는 돼지의 마릿수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몇 마리를 기르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

가 통합 전산망을 만들어 그것을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통합관리전산망을 만들어 준다면 여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양돈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 기록에는 단순히 돼지의 마릿수만 관리하는 게 아니다. 어느 지역 어떤 돼지 몇 마리가 언제 어떤 질병에 걸렸으며, 어느 양돈농가에서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는 데 어떤 치료제로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

## 無 等 鼓

'폼수'의 사전적 의미는 제제할 수단이나 방법을 뜻한다. 폼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슨 수라도 동원한다. 따라서 폼수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폼수 열풍'이 불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팟캐스트(스마트폰 사용자 대상 인터넷 방송) '나는 폼수다' (나폼수)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나폼수는 정치, 사회에 대한 풍자를 모토로 한다. 이를 표방하듯 나폼수는 '각각 한정방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첨단 IT기술에다 신세대 구미에 맞춘 나폼수는 2040를 열광시 키기에 충분하다.

취업난 등으로 앞길에 막막한 20대, 사회에 뛰어들었지만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감을 품는 30~40대의 불만과 분노를 풍자로 녹여내는 나폼수가 인기를 얻지 못한다면 되레 이상한 일이다. 엇그제 미국 뉴욕타임스와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은 각각 인터넷판과 1

면에서 나폼수 열풍을 다뤘다. 신문은 나폼수가 기성 정치권,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폭로와 풍자를 하며, 고달픈 현실에 갇힌 젊은이들의 스트레스가 이곳을 통해 분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폼수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최근 있어서는 안 될 진짜 폼수가 나타났다. 감사원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대학재정 운용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대학 등록금이 15% 정도 거품이 나타났다. 이는 대학들이 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지출은 부풀리고, 수입은 축소하거나 빼돌리는 등 예산편성을 제멋대로

했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이사장 등이 교비를 싹쓸이 쓰듯 하다가 적발됐다. 말이 대학이지 재정은유니나 도덕성 측면에서 볼 시립일 못지 않은 '폼수 천국'이었던 셈이다. 폼수를 부린 대학들도 나폼수에 불려가 신랄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채우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명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미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